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본격 추진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 수상스키·웨이크보드대회 등 도내서 개최
도, 해양레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도 병행... 관련 분야 저변 확대

전북도는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관련 사업을 육성·추진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해양레저스포츠와 웰니스 등에 대한 관심 증대 및 레저관광 활동 수요 증가로 해양레저스포츠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새만금, 고군산군도, 변산반도를 연계한 국제 요트대회 등

해양스포츠 대회를 개최해 해양레저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 내륙지역의 호수 강 저수지를 이용한 카누·카약 등 해양레포츠 체험 및 교육도 병행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민들의 건강 증진을 통해 삶의 질도 높인다는 구상이다. 먼저, 제8회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가 전문선수 종목 동호인 선수 소형 요트 등 3개 종목으로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새만금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부안 격포항을 중심으로 열린다. 이어 9월에는 2023년 전라북도지사배 수상스키·웨이크보드 대회가 군산 육산저수지에서 열려 도민에게 내륙에서 즐길 수 있는 수상레저스포츠를 소개할 예정이다. 더불어 해양레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 지원을 통해 안전한 해양레저스포츠 활동과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해양소년단 전북연맹(군산), 김제지평선마린리조트(김제), 섬진강수상레저연맹(순창) 및 전북요트협회(부안)에서 4월 말부터 11월까지 카누, 카약, 요트, 생존수영 체험 및 이론교육을 일반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해양스포츠 대회와 해양레포츠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이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와 해양스포츠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라북도가 해양레저스포츠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변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30일 순창에서 전지훈련을 시작하는 필리핀 소프트테니스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최영일 순창군수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글로벌 소프트테니스 메카 도약 꾀한다

순창군, 필리핀 국내 전지훈련 유치... 내달 11일까지 훈련

소프트테니스의 본고장 순창군이 필리핀 소프트테니스 국가대표 선수단 전지훈련을 유치해 글로벌 소프트테니스의 메카로의 도약을 노리고 있다. 필리핀 소프트테니스 국가대표팀은 지도자 4명, 선수 14명으로 총 18명으로, 3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13일간 순창군 공설운동장 소프트테니스 구장에서 전력 강화를 위한 훈련에 돌입하게 된다.

필리핀대표팀은 2018년, 2022년 2차례 전지훈련을 위해 순창군에 방문한 바 있으며, 작년 10월에 맺은 순창군과 필리핀소프트테니스협회의 스포츠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서로의 인적, 기술적 정보 교환을 통해 서로가 발전하자는 뜻에서 올해도 순창군에 방문하게 됐다.

훈련 목적은 전지훈련 기간에 순창에서 개최 중인 '제44회 회장기 소프트테니스 대회'를 참관해 심진적인 우라나리의 스포츠 기술 습득을 통해 동아시아게임(SEA GAME)과 항저우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과

를 내기 위함이다. 군은 필리핀 대표팀이 전지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소프트테니스협회 및 순창군 초·중·고등학교 소프트테니스부 지도자의 재능기부와 함께 스포츠마케팅팀에 소속돼 있는 선수 출신 직원을 동원해 1:1 파트너 훈련을 통해 기술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전지훈련은 지역경제에 가장 효과적인 경기부양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필리핀 소프트테니스팀 유치를 통해 순창군이 해외 전지훈련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민선 8기를 맞아 글로벌 전지훈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필리핀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소프트테니스 국가대표팀도 순창군과 전지훈련을 협의 중에 있으며, 스포츠마케팅팀이 직접 국제 스포츠대회에 방문해 해외 스포츠팀과 접촉을 하는 등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순창=이양원기자



아외 태권도 놀이시설 '플레이원' 내일 오픈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용환 이하 재단)과 태권도원운영관리주식회사(대표이사 서필환 이하 자회사)는 4월 1일 아외 복합체육시설인 플레이원(Playwon)을 개장하며 1일과 2일 무료 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

플레이원은 280미터 길이에 쥘라인 타기, 막고 통과하기, 주먹 피하기, 그물 잡고 이동하기, 격파 완수하기 등 태권도 동작을 활용한 16개의 체력코스로 이루어져 있다. 체험자는 안전 헬멧에 부착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통해 구간별 통과 시간 등 자신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재미와 함께 선의의 경쟁을 통한 근지구력·유연성·민첩성 등 체력 향상에 도움 되는 체험시설이다.

이용 요금은 1회권 기준 청소년 4,000원 성인 5,000원으로 2회권과 추가권 등 '이용 횟수' 및 가족 단체 등 '이용 인원'에 따른 할인이 적용된다. 4월에는 주말에만 운영한다.

매일 플레이원 이용에 대한 안내는 태권도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기자

'전북 아·태 마스터스 성공 개최 기원'

효성첨단소재, 조직위와 대회 공식 후원 협약 체결

효성첨단소재(주)대표이사 조용수가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공식 후원사로 참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직위원회(위원장 김관영)는 이날 전북도청 4층 행정부지사실에서 효성첨단소재(주)와 대회 공식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봉업 행정부지사, 서유석 전주공정장, 이강오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효성첨단소재(주)는 2023년 6월 30일까지 대회 공식 후원사로 함께하게 되며, 공식 서포터 등급에 따른 주요 권리가 제공된다.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미래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탄소섬유를 생산하는 대표 기업인 효성첨단소재(주)가 공식 서포터 등급으로 공식 후원사로 참여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가



30일 전북도청 4층 행정부지사실에서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사진 오른쪽)와 서유석 효성첨단소재 전주공정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공식 후원 협약식이 열렸다.

가장 성공한 대회로 남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유석 공정장은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라는 국가적 행사에 효성첨단소재(주)가 기여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

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효성첨단소재(주)는 나눔으로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사회공헌 슬로건 아래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 후원, 효국보훈을 3대 중점 과제로 삼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 시·군 유소년축구교실 운영 개시

지난 몇 년 코로나19로 축소됐던 도내 축구교실이 모두 문을 활짝 열고 이를 손꼽아 기다렸던 축구 꿈나무들은 기본기를 다지며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14개 시군에서 15개소 유소년축구교실이 학생 모집을 완료하고 운영을 개시했으며 300여 명의 유소년 축구꿈나무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 2곳을 비롯해 각 축구교실은 축구지도자 1명씩을 선발해 학생들에게 축구 기본기와 협동심 등을 가르치고 있으며 6~7월 중에는 시군교실이 모두 참여하는 유소년축구대회가 전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전국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정읍서 개최

정읍시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2023년 전국 종별(대학·일반) 배드민턴 선수권대회가 지난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에 걸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는 한국대학·실업 배드민턴연맹이 주최하고 전라북도배드민턴협회와 정읍시배드민턴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발전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이번 대회에는 대학부와 일반부 59개 팀 73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뽐냈다.

경기는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나누어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유튜브와 네이버TV, 오마이플레이 앱을 통해 생중계됐다.

한편 이번 대회 참가와 관람을 위해 선수단과 관계자 등 전국에서 총 1,100여 명이 정읍을 방문했다. 이들은 지역 내 숙박시설과 식당을 이용함으로써 지역 상권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